

크리스채너티 투데이 성탄절 묵상

영원한 왕이
오시다 .

대림절 기간 동안 위대하고 겸손한 구세주와의 순례





대림절 기간 동안 위대하고 겸손한 구세주와의 순례



THE ETERNAL KING ARRIVES: A Christmas Devotional from Christianity Today
Copyright © 2023 Christianity Today. All rights reserved.

Christianity Today, 465 Gundersen Dr., Carol Stream, IL 60188
ChristianityToday.com

Printed in the USA

Unless otherwise indicated, Scripture taken from the Holy Bible, NEW INTERNATIONAL
VERSION®, NIV® Copyright © 1973, 1978, 1984, 2011 by Biblica, Inc.® Used by permission.
All rights reserved worldwide.

Scripture quotations marked CSB have been taken from the Christian Standard Bible®,
Copyright © 2017 by Holman
Bible Publishers. Used by permission. Christian Standard Bible® and CSB® are federally
registered trademarks of
Holman Bible Publishers.

Scripture quotations marked (KJV) are from the King James Version. Public Domain.

Scripture quotations marked (ESV) are from the ESV® Bible (The Holy Bible, English Standard
Version®), copyright © 2001 by Crossway, a publishing ministry of Good News Publishers.
Used by permission. All rights reserved.

EDITOR Conor Sweetman
EDITOR IN CHIEF Russell Moore
CREATIVE DIRECTOR Sarah Gordon

DESIGNER Alecia Sharp
ILLUSTRATIONS BY Phil Schorr
PRODUCTION Rick Szuets

COPY EDITING BY
Alexandra Mellen
Sara Kyoungah White

목 차

들어가는 말

7

묵상 계획

8

기고자

11



제 1 부

예 언 된 취 임 식

16

제 2 부

영 원 한 희 념

30

제 3 부

신 성 한 대 관 식

44

성 탄 절

64

올해도 대림절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대림절은 기독교 달력에서 특별한 시기이며, 성탄절을 기다리는 매우 의미 있는 시간입니다. 이 기간에 우리는 일상을 살아가면서 이웃들과 만남을 준비하며 분주한 주방에서 음식을 준비하고, 촛불을 켜고 예배를 준비하고, 거실이 선물포장지로 뒤덮일 거라 예상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이 대림절 묵상을 함께 하도록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 묵상집은 겸손하고 영광스러운 왕이 오시기를 기다리면서 신학적 진리와 개인적인 계시를 깊이 있게 살펴볼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작고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오셔서 성육신을 통해 피조물에 대한 온화한 사랑을 보여주신 그리스도의 영광과 온화함을 깊이 묵상할 수 있도록 이 묵상집을 구성했습니다.

12월 한 달 동안, 우리는 그분의 왕권의 주권과 능력, 그리고 자신을 내어주시면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을 선포할 것입니다.

먼저, 구약성경 전체에 걸쳐 약속된 왕을 향한 이스라엘의 소망과 왕이 오실 것이라는 표징과 예언을 묵상하며 그리스도의 예언된 취임식을 살펴봅니다. 다음으로, 예수님의 성육신이 예고하는 영원한 희년, 즉 자유와 기쁨, 새 생명의 시대를 축하하며 기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관식과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을 경외심으로 바라보며 성탄절을 기다립니다. 그분은 우리가 오랫동안 기다려온 구세주이십니다. 이번 대림절에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진리, 즉 영원한 왕이 오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기愿합니다. **CT**

한 아기가 우리를 위해 태어났다.
우리가 한 아들을 모셨다.
그는 우리의 통치자가 될 것이다.
그의 이름은 '놀라우신 조연자',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화의 왕'이라고 불릴
것이다.

이사야 9:6

목 상 계 획

대림절 첫째 주

- 1일차** 미가서 5:2-5
알렉시스 래건: 왕의 겸손한 성품
- 2일차** 예레미야 23:5-6
엘리자베스 우드슨: 완전한 통치자에 대한 예언
- 3일차** 이사야 7:10-14
알렉산드라 후버: 끈질긴 사랑
- 4일차** 누가복음 2:22-32
몬티 월드론: 예정에 없던 약속
- 5일차** 누가복음 4:16-21
크리스텔 에이스베도: 모든 것을 바꾼 회당 방문
- 6일차** 이사야 35:4-10
베카 브루더: 그는 우리를 고통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않는 분

대림절 둘째 주

- 1일차** 요한복음 16:33
스트라한 콜먼: 우리의 나쁜 소식들에 대한 좋은 소식
- 2일차** 요한복음 3:16-21
로니 마틴: 우주보다 큰 사랑
- 3일차** 고린도후서 3:17-18
스티브 우드로: 영광을 바라보는 방법
- 4일차** 베드로전서 2:9
엘리자베스 우드슨: 우리가 하나님의 것임을 잊을 때
- 5일차** 요한일서 3:25-30
로라 위플러: 작아지는 것의 유익
- 6일차** 에베소서 1:15-23
카를로스 휘태커: 진정한 소망은 만들어질 수 없습니다

대림절 셋째 주

- 1일차** 골로새서 1:15-20
캐롤라인 그렙: 창조주 첫 아들의 움직임
- 2일차** 누가복음 1:26-38
말콤 구이트: 마리아의 응답에 담겨진 긴장감
- 3일차** 마태복음 1:18-25
조이 클락슨: 요셉은 왜 침묵의 성자로 알려졌을까?
- 4일차** 누가복음 1:39-55
도로시 베넷: 대조적인 두 어머니
- 5일차** 마태복음 2:13-23
크리스텔 아체베도: 이집트에서 영원으로
- 6일차** 이사야 60:1-3
존 닛타: 어둠에서 빛으로
- 7일차** 누가복음 2:13-14
알렉시스 래건: 구원의 교향곡

대림절 넷째 주

- 크리스마스 이브** 누가복음 2:8-20
로니 마틴: 하나님의 놀라운 선포 방식
- 성탄절** 이사야 9:2-7
트릴리아 뉴벨: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빛이 있습니다
- 12월 26일** 마태복음 2:1-12
말콤 구이트: 이 '주현절'이 특별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 12월 27일** 요한계시록 21:1-6
크레이그 스미스: 애통하는 자들을 위한 대림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온 세상에 나가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여라."
마가복음 16:15

기 고 자



크리스텔 에이스베도 Kristel Acevedo

작가이자 성경 교사이며 노스캐롤라이나주 살럿 외곽에 위치한 Transformation 교회의 영성 담당 디렉터입니다.



도로시 베넷 Dorothy Bennett

세인트 앤드류스 대학교에서 신학 및 예술 석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현재 텍사스주 오스틴에서 비디오 마케팅 회사를 공동 운영하고 있습니다.



베카 브루더 Beca Bruder

Comment 매거진의 편집장입니다.



조이 클락슨 Joy Clarkson

작가이자 편집자이며 신학 박사 과정 중입니다. Plough의 책과 문화 편집자입니다.



스트라스한 콜먼 Strahan Coleman

뉴질랜드 아오테아로아 출신의 작가, 음악가, 영성 지도자입니다. 최근 출간된 Beholding을 포함하여 세 권의 묵상 기도서를 저술했습니다.



캐롤라인 그렙 Caroline Greb

아내, 어머니, 주부, 미술가이자 Ekstasis 매거진의 부편집장입니다.

기 고 자



말콤 구이트Malcolm Guite

케임브리지 거트 칼리지의 전 교육이자
종신 교수입니다. 그는 신학과 문학에
대해 폭넓게 가르치고 강의하고
있습니다.



알렉산드라 후버Alexandra Hoover

아내이자 세 아이의 엄마, 연사, 사역 리더
이자 베스트셀러 Eyes Up: How to Trust
God's Heart by Tracing His Hand의 저
자입니다.



크레이그 스미스Craig Smith

Vail 교회의 담임목사입니다.



몬티 월드론Monty Waldron

결혼하여 슬하에 네 자녀가 있으며
2000년에 Fellowship Bible 교회를
시작했습니다.



로니 마틴Ronnie Martin

오하이오주 애쉬랜드에 있는 Sub-
stance 교회의 담임목사입니다.
Harbor Network의 리더 리뉴얼 디
렉터로 일하고 있으며 7권의 책을 저술
했습니다.



트릴리아 뉴벨Trillia Newbell

52주 말씀 묵상 등 여러 권의 책을
저술했으며 Living By Faith 라디오
진행자이자 무디 출판사의 인수 담당
이사입니다.



카를로스 휘테커Carlos Whittaker

스토리텔러이자 연사이며, Moment
Maker, Kill the Spider, Enter Wild
및 최근 출간한 How to Human의 저자
입니다.



로라 위플러Laura Wifler

작가이자 팟캐스터이며 Risen Moth-
erhood의 공동 창립자입니다. Any
Time, Any Place, Any Prayer를 비
롯한 어린이를 위한 여러 권의 책을 저
술했습니다.



존 니타Jon Nitta

인디애나주 발파라이소에 있는
Calvary 교회의 영성 형성, 제자 훈련
및 소그룹 담당 목사입니다.



알렉시스 래건Alexis Ragan

창의적인 작가이자 ESL 강사로, 세계
선교에 열정을 쏟고 있습니다.



스티브 우드로Steve Woodrow

지난 23년 동안 콜로라도주 아스펜에
있는 Crossroads 교회에서 교육 및 지
도 목사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엘리자베스 우드슨Elizabeth Woodson

성경 교사, 신학자, 작가이자 신자들이 신앙을 이
해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단체인 Woodson
Institute의 설립자입니다.

우리는 복된 소망 곧 위대하신
하나님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고대합니다.

디도서 2:13





예언된 취임식





첫째 날
미가서 5:2-5



왕의 겸손한 성품

위대한 지도자의 대담한 선포

BY 알렉시스 래건

구약 성경의 예언서를 보면 영원한 통치자가 베들레헴에서 나올 것이 예정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미가서 5장 2절은 마치 도시에서 도시로 널리 퍼지도록 선포하듯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다. 그의 기원은 아득한 옛날, 태초에까지 거슬러 올라간다.”라고 말합니다.

이 대담한 선포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이 탄생 소식을 비밀에 부치지 않으시고 온 땅에 확신 가운데 전파하도록 계획하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의 혈통에서 태어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이 땅에 오셔서 백성들 스스로는 극복할 수 없는 상황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영원하신 왕이 마침내 오실 것을 기대한 예언자 시대의 기다림이 어떤 느낌이었을지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호기심 많은 성도들과 몽상가들은 모두 큰 기대를 품고 살았을 것입니다. 이 왕은 어떤 분일까? 어떤 지혜로 우리를 축복하여 유배

지에서 벗어나게 해줄까? 마침내 왕이 오셨을 때 어떻게 자신을 나타내실까? 궁극해했을 겁니다.

예수님은 그분의 본성에 따라 안전한 곳으로 양들을 은혜롭게 인도하는 목자장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목자가 양을 인도하듯 내가 가고 싶은 길이 아니라, 내가 가야 할 길로 인도하시는 목자 되신 우리 구주로 인해 우리는 깊은 평안함을 느낍니다. 찬송가 “모든 축복의 샘이시여”의 가사처럼 우리는 모두 안전한 길에서 벗어나 그분의 마음에서 떨어진 “방황하기 쉬운” 존재입니다.

목자는 아버지의 이름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그분의 위엄과 존귀함으로 덮을 것입니다. 그는 백성들의 삶의 궁극적인 인도자로서 굳건히 서서 그들을 용감하고 담대하게 영원한 목초지로 인도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갈망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절실히 필요로 하는 안식처, 즉 안식을 제공하는 안전한 피난처였습니다. 미가서 5:4은 그리스도께서 가져오실 거룩한 보호막에 대한 확신을 우리에게 줍니다.

“그의 위대함이 땅끝까지 이를 것이므로, 그들은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목자의 양으로서 우리는 풍성한 번영과 보호를 받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땅의 주민들은 목자장께서 “우리의 평화가 되실 것”(5절)이라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는 목자장이 지팡이를 손에 들고 서 있고 온순한 양 떼가 나무 그늘 아래에서 자유롭게 쉬고 있는 모습

을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평화로 인해 삶의 모든 길에서 우리는 영원한 살류를 누릴 것입니다. 사방에서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앓시리아 군대조차도 성문을 뚫을 수 없었습니다(5절). 사랑이 넘치는 창조주의 통치 아래 영원히 위협받지 않고 풍성한 들판에 머무는 것보다 더 안전한 곳은 없습니다.

묵상하기

우리 왕의 겸손한 성품은 우리가 하나님의 신비한 계획을 이해하는 데 어떤 도움을 줄까요?

예수님을 우리의 목자장으로 받아들이면 우리의 일상과 관계가 어떤 방식으로 변할 수 있을까요?



둘째 날
예레미야 23:5-6



완전한 통치자에 대한 예언

권력의 완전성에 대한 놀라운 약속

BY 엘리자베스 우드슨

예레미야는 정치적 혼란을 겪고 있는 사람들 앞에 나타난 예언자였습니다. 오랫동안 탐욕과 우상 숭배, 불의로 가득 찬 사악한 왕들이 유다를 통치해 왔습니다. 당시 왕들은 백성들을 돌보지 않고 억압했습니다. 예레미야는 그 왕들에게 언약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목양하라고 권유했습니다. 또한, 주변 국가들을 본받지 말고 분별 되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경배하는 모습을 열방에 보여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왕들은 예레미야의 경고를 무시했습니다. 왕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죄를 지었고 백성들은 고통을 겪었습니다.

이 혼돈의 시기에도 하나님은 침묵하지 않으셨습니다. 예레미야를 통해 유다의 지도자들에게 부적절함과 실패를 지적하셨습니다. 예레미야의 말은 최종적인 권위가 아니라 오직 한 분, 진정한 주권자로부터 나온 권위를 위임받은 사람들의 범죄

혐의를 제기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왕들은 자신이 하나님께 속한 백성을 돌보도록 임명된 청지기라는 사실을 잊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23장 5-6절에서 예언자는 놀라운 약속을 들려주었습니다. 하나님은 유다 왕국의 신경 체제를 없애지 않으실 것이다. 그분은 그것을 완벽하게 만들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가문에서 왕위를 계승할 정당한 상속자인 “의로운 가지”를 세우실 것이다. 이 왕은 유다의 왕들이 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를 완벽하게 실현하는 길로 나라를 이끌 것이다. 그의 통치 아래, 백성들은 번영할 것이고, 하나님은 경배를 받으실 것이다. 이 왕은 모든 압제로부터 백성들을 구원할 것이다.

그러나 이 왕은 인간 왕이 아닙니다. 이 왕은 바로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십니다. 예언자는 백성들에게 소망으로 가득 찬 말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잊지 않으셨다는 사실을 상기시켰습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고통이 끝날 길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유다와 유다의 왕들을 근본적인 문제, 즉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 성자 하나님을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의 통치 아래서 더이상 죄는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악을 처벌하며 모두를 평등하게 하실 것입니다. 인류는 공의로 다스려지고 하나님의 의를 반영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가 방해하고 파괴하려고 하는 살해를 회복시킬 것입니다.

우리도 삶에서 하나님의 피조물을 돌보지 않고 탐욕과 우상 숭배, 불의를 선택하는 지도자들이 통치하는 정치적 혼란의 무게를 느끼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유다의 아픔을 보셨던 것처럼 우리의 아픔도 보실 것이며, 약속하신 메시아의 소망은 우리의 소망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초림을 축하하며 아울러 그분의 재림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우리에게 “의로운 신 주님”의 통치가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묵상하기

유다 왕들의 실패를 통해 하나님의 공의와 의를 반영하는 리더십의 중요성에 대해 어떤 점들을 알 수 있을까요?

이는 우리 삶과 영향력 부분에서 어떤 방식으로 적용될 수 있을까요? “의로운 가지”로서의 예수님의 통치는 어떻게 살림의 회복과 죄의 패배를 가져올 수 있을까요?



셋째 날
이사야 7:10-14



끈질긴 사랑

우리가 두려워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돌보십니다

BY 알렉산드라 후버

저는 매일 어린 아들에게 제가 얼마나 사랑하는지 말해줍니다. 지난 몇 달 동안 저는 아들이 걱정하고 슬퍼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또래의 다른 아이들과 마찬가지로 아들도 학교 충격 사건, 폭동, 팬데믹, 정치적 긴장에 관한 뉴스에 갇혀 있었었습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저도 두려움이 컸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들에게 자주 “킹스틴, 넌 사랑받고 있어. 우린 안전해. 네가 느끼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단다.”라고 말해주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듯이 제 아들도 이 사실을 믿기 힘들어합니다. 고된 세상에서 소망은 어디에 있을까요?

이사야 7장 10-14절에는 임박한 정치적 위험과 분쟁 속에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아하스 왕이 등장합니다. 적들이 유다 나라를 향해 바짝 다가오고 있고, 아하스의 마음속에는 다른 곳에서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생각이 가득합니다. 아하스 왕은 하나님의 율법을 알고 있었지만 신뢰하지 않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심에도

불구하고 아하스는 우상을 숭배했고, 심지어 아들을 제물로 바칠 정도에까지 이르렀습니다(왕하 16장). 하나님께서는 유다를 향해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아하스가 명령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주의하지 않으면 멸망을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사 10-11장).

하나님께서 유다 왕을 끈질기게 살피신 것은 아하스의 회개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삶과 죽음, 부활과 승천이 우리 모두를 위한 것인 것처럼, 이스라엘 모든 백성의 구원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아하스는 일시적인 것에 정신이 팔려 있었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방식이 문을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불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과 임재를 거부하는 아하스에게도 이사야는 한 가지 표징을 줍니다. “보십시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며 그가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할 것입니다”(사 7:14).

놀라운 구원이 예수님의 탄생을 통해 도래할 것입니다. 소망은 이제 여기에 있습니다(마 1:20-22). 하나님은 우리의 혼란과 다가올 위험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하십니다. 우리의 고난은 순간적이며,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소망을 주시기 위해 내려오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듣고 믿으라고 간청하시고, 우리의 연약함과 불신앙 속에서도 이것이 가능하도록 도와주십니다.

아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저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다독이는 것처럼 아들의 마음을 끊임없이 다독여 주

었습니다. 두려움이 우리를 지배해서는 안 되며, 그리스도의 소망이 우리를 지킬 수 있다는 사실을 아들에게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의심과 두려움에 휩싸여 있는 이 시기에도 예수님의 사랑은 그의 백성들 위에 끊임없이 풍성하게 임하십니다. “어머니가 그 자식을 위로하듯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이니”(사 66:13)라고 약속하신 그분은 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하고 대속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위대한 이정표 된 자기 죽음을 대가로 우리에게 생명을 선물하신 왕이십니다. 오늘날에도 아하스처럼 완고한 마음을 품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 안에 있고, 그분의 임재가 여러분과 함께하며, 그분의 약속이 여러분 위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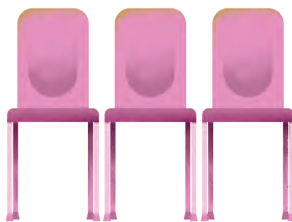
묵상하기

아하스 왕의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의 마음을 끈질기게 살피시며 그들을 구원하신다는 것을 어떻게 보여주나요?

우리는 두려움과 혼란 속에서도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신다는 확신을 갖고 소망과 위로를 찾을 수 있을까요?



넷째 날
누가복음 2:22-32



예정에 없던 약속

시므온의 오랜 기다림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의미

BY 몬티 월드론

누구나 대기실에서 기다려 본 경험이 있을 겁니다. 저는 몇 주 전에 병원에 갔을 때 대기실에 있었는데 그 공간은 밝고 따뜻하며 편안했습니다. 접수 후, 쌓여 있는 잡지를 읽거나 텔레비전으로 쇼를 보거나 휴대전화로 소셜 미디어를 살펴보고, 창밖을 바라보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 기다림은 의무적인 시간이었습니다. 대기실에 있는 그 누구도 이 상황을 피할 수 없었고, 대기 시간은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길어졌습니다. 우리는 인생이 우리의 계획대로 흘러가기를 바라는 마음을 갖고 살아갑니다.

종종 우리의 기다림은 우리가 만든 약속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정해진 시간에 이런저런 사람을 만나기로 약속합니다. 하지만 그 시간이 지나면 기다리게 되고, 기다림이 길어질수록 우리는 더 초조해집니다.

만약 세상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과 약속이 잡혀 있는데 달력에 표시되어 있지 않다면 어떨까요? 만왕의 왕을 만나게 될 것이라는 말을 들었지만, 날짜나 시

간은 알려주지 않고 죽기 전 “언젠가”라는 말만 들었다면 어떨까요? 이것이 시므온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므로, 이스라엘이 받을 위로를 기다리고 있었고, 또 성령이 그에게 임하여 계셨다. 그는 주님께서 세우신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할 것이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은 사람이었다.” (눅 2:25-26).

이처럼 대기한다고 생각해 보면 어떠한가요? 매일 아침 눈을 뜨면서 ‘오늘일까’ 궁금해한다고 상상해 보세요. 성령께서 계시하신 약속은 분명 기억에 남을 만큼 강력하고 설득력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시므온도 인류를 위한 유일한 구원의 근원인 그분을 기다리는 일의 무게를 느낀 순간이 분명 있었을 것입니다. 이야기의 결말은 알지만 기다리는 시간 동안 불확실성을 안고 살아야 하는 불안감을 어떻게 견뎌냈을까요?

저는 시므온의 헌신이 계획 그 자체보다 계획을 세운 분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아마도 그는 시간이나 세부 사항에 관해 묻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마도 그는 그 약속을 신성한 주권의 영역으로 간주했을 것입니다. 시므온은 이 모든 일이 눈앞에서 펼쳐지는 것을 보고 기뻐하며, 약속하신 분이 말씀하신 대로 완벽한 때에 “주님께서 나타나시기를 사모하는” (딤후 4:8) 모든 사람의 유익을 위해 행하실 것을 확신했습니다.

이 시기에 시므온의 눈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이 도래하는 것을 보는 것이 얼

마나 큰 선물입니까? 저도 시므온처럼 왕이 약속하신 대로 다시 오실 것이라는 확신으로 가득 찬 마음으로 기다리고 싶습니다. 그분은 약속을 지키십니다. 그리고 그날에 우리는 증인으로 합류하여 우리의 구원을 직접 대면하고 평화롭게 떠날 것입니다(계 22:1-5).

묵상하기

우리는 오늘 만왕의 왕과의 만남을 기대하는 것에 대해 생각해 봅니다. 이러한 관점의 전환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우리 삶에서 그분의 약속에 대해 이해하는 데 어떻게 도움이 되나요?

시므온의 헌신은 계획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그 계획을 세운 분에 중점을 두고 있었습니다. 이를 여러분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는 확신이 있습니까?



다섯째 날
누가복음 4:16 - 21



모든 것을 바꾼 회당 방문

우리의 불안함을 덜어주는 예수님의 도래

BY 크리스텔 에이스베도

일마 전 제 친구가 자신의 가족과 함께 제 딸을 데리고 쇼핑몰에 갔습니다. 저는 아침부터 설 틈 없이 일하다가 딸을 데리러 가려고 했는데, 그때 전화벨 소리가 울렸습니다. 제 친구의 남편으로부터 걸려 온 전화였습니다. “쇼핑몰에서 충격 사건이 발생했어요. 아내와 통화했는데, 아내와 아이들은 무사하지만 간혀서 나올 수 없다고 하더군요.”

저는 정신없이 급하게 쇼핑몰에 도착했고, 긴박한 마음에 현기증이 났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든 기다림을 해야만 했습니다. 경찰의 현 상황에 대해 보고를 기다렸고, 친구와 통화하며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낼 수 있기를 기다렸습니다. 딸을 품에 안고, 다친 곳은 없는지 확인하고, 딸의 두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그 시간을 견디며 기다렸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의 삶에 고통이 찾아올 때나 전쟁, 질병, 부패, 폭력을 마주했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면 긴박한 두려움이 우리를 급습합니다. 긴급한 도움

이 필요한데 우리의 희망은 어디에 있을까요? 절망에 빠지지 않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동안, 저는 고대 유대인 공동체가 구원과 메시아의 도래를 기다리면서 어떤 기분이었는지 상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은 지 400년이 지났고, 그들은 엄청난 억압과 참혹한 식민 생활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자신들을 잊으신 건 아닌지, 구세주가 정말 오실지 궁금해했을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수라는 사람이 회당에 들어와 이사야 선지자의 두루마리를 읽었습니다.

주님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주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포로 된 사람들에게 해방을 선포하고,
눈먼 사람들에게 눈 뜸을 선포하고,
억눌린 사람들을 풀어 주고,
주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
(누가복음 4:18-19, 새번역)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청중들이 기대할 수 있는 미래를 알려주시는데 그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그는 청중들의 입이 딱 벌어질 만한 놀라운 선언을 하셨습니다:

“이 성경 말씀이 너희가 듣는 가운데 오늘 이루어졌다”(21절).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안내하는 공식적인 선포입니다. 그분을 따를 때 우리는 더는 세상의 나쁜 소식을

에 절망하며 살지 않습니다. 대신, 우리는 보좌에 앉아 계신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쇼핑몰에서 딸을 기다리던 날처럼 우리 삶에서 끔찍한 상황에 직면했을 때도 그분이 우리를 구속하시겠다는 약속 위에 설 수 있습니다. 마침내 딸의 얼굴을 보고 딸을 끌어안았을 때, 제가 느낀 안도감과 기쁨은 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왕이 여기 계시며 영원한 희년이 다가오고 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묵상하기

저자의 긴박한 두려움에 관한 이야기를 들으며 어려운 상황에서 구원이나 소망을 기다리며 갈망했던 본인의 경험이 상기되나요?

예수님이 이사야를 통해 메시아의 성취를 선포하셨을 때, 이미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음을 선언하셨습니다. 주를 따르는 우리에게 이 선포는 세상의 도전과 어둠 속에서 어떻게 소망 가운데 행동할 힘을 주나요?



여섯째 날
이사야 35:4 - 10



그는 우리를 고통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않는 분

믿음을 구체화하는 어려운 일

BY 베카 브루더

성

령의 역사를 신뢰하는 일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질병, 장애나 학대와 같은 어려움은 우리 현실에 항상 존재하며, 우리의 주의를 온통 잡아끕니다. 이로 인해 우리의 마음은 종종 어지럽고 자기중심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 있으며, 자신을 비하하며 주의를 빼앗기고 맙니다.

우리는 메마른 영혼이 물을 찾을 수 있는 곳, 육체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안식을 원합니다. 우리는 구조해달라고 부르짖으며 우리 안의 불의에 대한 복수를 꿈꾸기도 합니다. 거품이 일렁이는 샘물에서 그리스도를 만나기를 바라지만 발밑의 불타는 모래에 정신이 혼미해집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치유의 언어로 하나님의 약속을 계시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메시아는 영적 평화를 가져다주실 것이지만 구속 받은 자들의 상처 입은 몸도 간과하

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시온으로 노래하면서 올라가게 하고, 소망의 밝은 새벽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고통 가운데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는 약속을 알면서도 불신의 길을 따라 방황합니다. 그리스도의 구속은 종종 우리가 상상했던 것과는 다른 형태로 나타나기에 세례 요한처럼 우리는 다른 왕을 기다려야 하는 건 아닌지 고민합니다. 우리가 엉뚱한 사람에게 소망을 둔 것은 아닐까요? 그는 우리가 생각했던 그 사람이 아니었나요? 우리는 구원이 오기를, 그리고 그 구원이 우리의 현실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키기를 갈망합니다. 요한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 나온 것입니다: “눈먼 사람이 보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하게 되며, 듣지 못하는 사람이 들으며, 죽은 사람이 살아나며, 가난한 사람이 복음을 듣는다.” (마 11:4-5).

예수님은 이사야가 예언한 구원자이십니다. 그의 손에서 나오는 치유를 통해 그의 신성이 증거됩니다. 이스라엘은 영적, 육체적 아픔을 치유해 주실 구세주가 오시기를 기다렸습니다. 그 희망은 아기의 탄생으로 현실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기적은 오랫동안 기다리던 치유의 첫 신호였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여전히 찢기고 연약한 모습으로 그분을 기다립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헌신을 가로막지 못하도록 우리는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을

향한 기대의 눈을 들어봅니다. 이번 절기 동안, 우리는 “오 오소서, 임마누엘”을 부르며 고대 이스라엘의 소망을 되새길 것입니다. 이 예언이 우리의 현실이 될 때가 올 것입니다. 우리는 구속 받은 자들과 함께 거룩한 길을 걸을 것입니다. 영원한 기쁨과 환희가 머리 위에 가득할 것이며 모든 슬픔은 사라질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고 가난한 자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며, 하나님의 백성을 모아 구원하기 위해 다시 오실 아기를 기억합니다. 그분은 잘못에 대한 신성한 보복과 우리의 상처에 대한 치유를 가져올 것이며, 우리는 온전해질 것입니다. “두려워하는 사람을 격려하여라. ‘군세여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의 하나님께서 복수하러 오신다. 하나님께서 보복하러 오신다. 너희를 구원하여 주신다’ 하고 말하여라.” (사 35:4).

묵상하기

이사야의 예언과 예수님의 치유 사역을 묵상할 때, 이 구절이 신체적 한계, 질병 또는 불의와 싸우고 있는 우리 자신에게 어떻게 위로와 소망을 가져다 줄 수 있을까요?

직면하는 시련과 도전을 넘어 굳건하고 강한 믿음을 유지하도록 서로를 어떻게 격려할 수 있을까요?



영원한 희년





첫째 날
요한복음 16:33



우리의 나쁜 소식들에 대한 좋은 소식

때때로, 고통을 단지 영적인 것으로만 치부할 수는 없습니다

BY 스트라한 콜먼

당신을 위한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곧 나쁜 소식도 전해질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성육신 사건에는 나쁜 소식들이 끼어 들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시자마자 한 세대가 독재자의 손에 의해 학살당했습니다. 그의 사역은 고문과 처형으로 절정에 달했습니다. 부활의 승리와 오순절 교회의 탄생 이후에도 성령으로 충만한 그의 제자들은 박해받고 추방되어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 지방에 흩어졌습니다.”(벧전 1:1) 결국 교회는 복음을 전 세계에 전했지만 사소한 신학적 의견 차이와 개인 숭배로 인해 고통과 분열을 겪어야 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기대했던 메시아 이야기도, 초대 교회의 꿈도 아니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고통을 없애는 데 집착하는 문화, 즉 고통을 차단하는 기술, 고통을 덜어주는 약, 고통을 피하는 기술을 발명하여 판매하는 문화에 살고 있습니다. “인생은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안타깝지만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할 것”(요 16:33)이라고 직접적으로 말씀하셨고, 이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깊은 고통을 경험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충격과 분노에 휩싸이고 준비되지 않은 자신을 발견합니다.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인생의 고난을 대하는 자세가 우리가 믿는 신학적 진리와 일치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러한 불일치가 삶에서 우리를 곤혹스럽게 합니다. 우리의 삶이 나쁜 소식으로 가득 차 있더라도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을 기대하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은 사실 매우 좋은 소식입니다.

고통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은 고통을 피할 수 있다고 믿거나 어려움을 불성실의 탓으로 치부하는 얕은 영성으로부터 우리를 예방시켜 줍니다. 고통은 예외나 실패가 아니라 삶에서 마주하는 실체입니다. 노력이나 긍정적인 사고가 우리를 고통으로부터 보호해 줄 것이라고 믿는다면, 실제로 충격적인 일이 닥쳤을 때 우리는 더 심각한 충격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러한 현실에 대해 가르치시며 고난의 불가피성과 고난을 극복하셨다는 확신을 모두 받아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현실은 우리에게 놀라운 자유함을 줍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죽음을 극복하신 것과 같은 방식으로 세상의 고통과 유혹을 극복하셨습니다. 즉, 고통과 유혹을 단순히 제거하지 않고 충실히 통과하여 죽음이 온 우주에 구원을 제공하는 바로 그 수단이 되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요한복음 16장에서 그리스도께서는 불안한 상황이 아닌 성령의 평안에 거하라고 초대하십니다. 세상의 고난은 그리스도의 손 안에 있으며, 성령께서 우리에게 통과할 수 있는 힘을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고통은 누구에게나 다가올 것이며, 때로는 영적인 것으로 치부할 수 없는 것일 수도 있고, 아마도 그 고통을 직면할 수 없을 것이라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일이 생기더라도 놀라지 말고, 고통을 극복하여 기적으로 만드는 것이 여러분의 몫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를 극복하시는 분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의지하며 그분이 여러분과 세상이 통과하고 있는 이 고통으로부터 구원하도록 허용하십시오. 이것이 대림절 이야기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이 땅의 실체입니다. 할렐루야!

목상하기

여러분에게 닥친 고통과 어려운 상황을 어떻게 직면하고 있나요?

고통의 시기에 어떻게 그리스도의 본을 따르며 성령이 주시는 평안을 의지할 수 있을까요?



둘째 날
요한복음 3:16 - 21



우주보다 큰 사랑

대림절에 우리 마음속에 차오르는 소망

BY 로니 마틴

저는 요한복음에 나오는 니고데모와 예수님 간의 관계를 좋아합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께 질문할 시간을 갖기 위해 동료 바리새인들의 비판을 피해 늦은 밤에 예수님을 만나러 갑니다. 유대 사람의 지도자인 니고데모는 권위 있는 예수님의 말씀을 더 듣고 싶어 합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의 질문에 인내심을 가지고 친절하게 대답합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가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며, 사랑이라는 틀 안에서 자신의 사명을 세상에 전합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하나님께서 세상을 우주만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을 것이라고 친절하게 설명합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어떤 사랑에 대해 말씀하나요? 우리는 어떤 것에 대한 애정을 표현할 때 “사랑”이라는 단어를 자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이런 음식을 좋아하고 직

업을 좋아하거나 TV 프로그램을 좋아하거나 취미를 좋아할 때 우리는 쉽게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이것도 물론 일종의 사랑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향한 사랑의 종류와 그 사랑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도록 의도하셨는지 보여주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사랑을 베푸셨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의 자녀라 일컬어 주셨으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요한일서 3:1).

예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들이라 부름으로서 하나님의 사랑의 계획과 깊이를 보여주셨습니다. 그 사랑은 엄청난 대가를 치른 사랑입니다. 가장 큰 사랑에는 반드시 큰 대가가 따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13절에서 “친구를 위해 목숨을 버리는 것, 이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애정이나 애뜻한 호감 정도의 감정이 아닙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우주보다 훨씬 더 깊고 넓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살고 하나님도 그 사람 안에 계십니다.”라고 요한일서 4장 16절에서 요한은 말합니다.

우리는 영혼 깊은 곳에 숨겨진 어둠 속에서 태어났지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우주의 가장 먼 곳까지도 비추는 밝은 빛으로 어둠을 뚫고 나오게 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위한 청사진만 제시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동기, 즉 사랑을 증거하셨습니다.

매년 대림절이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을 통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헤아릴 수 없을 만큼 크다는 것을 상상해봅니다. 이로 인해 우리 마음속에 소망이 차오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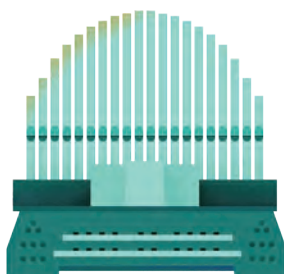
묵상하기

율법 지도자인 니고데모는 예수님에게 답을 듣고 하나님의 심오한 사랑을 깨닫습니다. 예수님이 말하는 사역에서의 사랑은 오늘날 일반적인 문화적 관점에서 우리가 말하는 사랑의 개념과 어떻게 다릅니까?

대림절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축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대하고 축량하는 절기입니다. 우리 삶에서 축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경외심과 감사함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셋째 날
고린도후서 3:17-18



영광을 바라보는 방법

우리는 우리가 보는대로 되어갑니다

BY 스티브 우드로

어느 무더운 여름날 주일 아침, 조지아주 애틀랜타에 있는 흑인이 주로 출석하는 교회에서 “영광”이라는 단어에 대해 거의 처음 제대로 생각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저는 설교자로 초청되어 그곳에 갔는데, 설교 중에 객석 맨 뒷줄에서 “영광!”이라는 말이 반복해서 터져 나왔습니다. 그 말에는 강약이 풍부하고 무언가 부인할 수 없는 영적 권위가 있었습니다. 뒤쪽에 앉은 여성들에게는 신학교를 갓 졸업한 저와는 다른 무언가가 느껴졌습니다. 저는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며, 그들이 아름답게 선포한 영광의 실체는 잠시 뒤로 하고 성경 본문을 통해 제가 가진 성경 지식을 전달하는 데 더 집중했습니다.

당시 저는 “영광”이라는 단어를 깊게 생각해 보지 않았고, 대화의 주제로 삼지도 않았습니다. 그 개념이 모호해서 심지어 조금 불편하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저는 그 여성들에게 있는 무언가가 뭔지 알아내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예배가 끝난 후 그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감정을

을 표현하기 위해 영광이라는 종교적 단어를 외친 것이 아니라 그 성도들은 그 자리에 함께 모여 말씀이 전파되는 주님의 영광을 함께 나누고 성령님과 의 교제를 경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활기찬 믿음은 저로 하여금 우리는 보는대로 되어 간다는 생각을 다시 일깨웠습니다. 예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키고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경험할 때, 우리는 그 영광을 점점 더 이해하고 반영하게 됩니다. 반면에 자신이나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우상에게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킬 때 가장 큰 속박이 찾아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죄의 속박에서 벗어나 주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도록 성령의 길을 만드셨습니다. 그의 임재는 우리 마음의 너울을 제거하여 우리로 하여금 그의 영광을 볼 수 있는 복과 그와 같은 영광으로 변화될 수 있는 복을 제공해 주십니다 (고후 3:17-18).

그들의 활기찬 믿음은 저로 하여금 우리는 보는대로 되어 간다는 생각을 다시 일깨웠습니다. 예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키고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경험할 때, 우리는 그 영광을 점점 더 이해하고 반영하게 됩니다. 반면에 자신이나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우상에게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킬 때 가장 큰 속박이 찾아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죄의 속박에서 벗어나 주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도록 성령의 길을 만드셨습니다. 그의 임재는 우리 마음의 너울을 제거하여 우리로 하여금 그의 영광을 볼 수 있는 복과 그와 같은 영광으로 변화될 수 있는 복을 제공해 주십니다 (고후 3:17-18).

수년 전 바로 그 주일 아침, 저는 편안하게 느끼는 지점을 벗어났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예배가 끝난 후 어려움을 토로하자 한 여성이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실 거예요!” 제 인생의 여정과 목회 사역을 하는 내내 제 시선을 예수님께 고정하라는 그 격려의 말씀이 절실히 필요했습니다.

그 여성들은 저에게 “지극히 높은 하늘에서는 하나님께 영광”(눅 2:13-14)이라고 선포한 천사들처럼 주님의 영광을 선포했고 구세주의 임재와 능력, 평화를 알려주었습니다. 저는 그들이 매 주일마다 우리 교회에 오셔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모두가 그분처럼 될 수 있도록 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도록 도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묵상하기

예배의 맥락에서 “영광”이라는 단어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여러분은 영광에 대한 이해를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이 개념이 하나님과의 관계와 예배에 어떤 영향을 미쳤나요?

교회 공동체가 함께 예수님을 바라보도록 격려하는 것은 감사한 일입니다. 여러분의 신앙 공동체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여정에서 어떤 방식으로 여러분을 지지하고 격려하나요?



넷째 날
베드로전서 2:9



우리가 하나님의 것임을 잊을 때

우리의 진정한 정체성을 찾는 치유의 향유

BY 엘리자베스 우드슨

영

원한 왕의 취임을 축하하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죄와 죽음의 속박에서 자유를 얻은 것을 축하하는 것입니다. 멀리 떨어져 있던 우리는 하나님과의 회복된 관계와 영원한 안식 속으로 가까이 가게 되었습니다(엡 2:13).

베드로의 말씀은 로마 제국에서 “외국인이자 망명자”로 살던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위해 기록되었습니다(벧전 2:11). 그들은 사회 계층 구조에서 시민권을 매우 중시하는 곳에서 시민권 없이 살아가는 임시 거주자였습니다. 또한 이 시기는 종교의 자유에 대한 로마의 관용이 줄어들고 있던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베드로는 왕 되신 예수님을 따르며 고통받는 소외되고 핍박받는 기독교인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베드로 사도는 이 땅의 권세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진정한 정체성을 결정하신다는 치유의 향유를 제공합니다. 베드

로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의 정체성을 설명하기 위해 택하신 족속, 왕 같은 제사장 나라,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물이라는 네 가지 문구를 사용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의 목적을 설명한 출애굽기 19장 4-6절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스라엘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세상에 보여주기 위해 구별되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복을 세상에 전하는 통로 역할을 함으로써 하나님의 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고난과 핍박은 사람을 비인간화시키고 사기를 떨어뜨려 존엄성과 소망을 빼앗아 갈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에게서 빼앗으려 했던 것을 회복하고자 했습니다. 베드로는 이 “외국인이자 망명자”들에게 그들이 고귀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성도들은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는 아브라함의 가족 구성원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열방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도록 구별된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영원한 지위를 가졌습니다.

비인간화 되었던 우리는 복음을 통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힘과 존엄을 입어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하지만 죄와 악으로 가득 찬 이 세상에서는 이 사실을 잊기 쉽습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께 속한 존재라는 사실을 종종 잊습니다. 삶의 고난에 눈이

멀어 우리는 그의 것이라는 우리가 가진 영원한 소망을 제대로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설리 시저의 말처럼 “우리가 가진 이 소망은 세상이 우리에게 준 것이 아니며, 세상이 빼앗을 수도 없습니다.” 밤이 아무리 어두워도 우리에게 항상 소망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신실하심이 영원히 우리를 따를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고통과 핍박 속에서도 우리의 눈은 현세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정체성, 가치, 소명은 세상이 아닌 하나님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이며, 영원한 집에서 하나님과 함께할 것입니다.

묵상하기

선택 받은 백성이자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물로서의 우리의 정체성을 이해하는 것이 고난과 박해에 대한 우리의 관점에 어떤 도움을 주나요?

세상은 어떤 방식으로 우리의 정체성과 가치를 정의하려고 하나요? 우리의 진정한 정체성은 하나님에 의해 결정된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섯째 날
요한복음 3:25-30



작아지는 것의 유익

쇠하는 시기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방법

BY 로라 위플러

자신이 누군가를 대체하는 존재라고 느낀다면 결코 기쁘지 않을 겁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그러한 것을 좋아하지 않았습니 다. 요한과 제자들이 살렘 근처에서 세례를 베풀고 있을 때, 예수님도 근처 유대 시골에서 세례를 베풀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스승이 자신들보다 더 큰 성공을 거두고 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은 요한의 제자들은 “모든 사람”이 예수님께 가서 세례를 받는다고 요한에게 걱정하며(요 3:26) 말했고, 아마도 스승으로부터 분노나 경쟁적인 반응을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한은 그들에게 복음의 역설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보여주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상치 못한 상황의 반전을 두려워했지만, 요한은 제자들에게 자신이 계속 말했던 것을 상기시킵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분보다 앞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다”(28절). 실제로 예수의 성공 소식을 들은 요한은 “기쁨으로 가

득 차 있다”(29절)고 말합니다. 요한의 인기는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그의 성공은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의 영향력은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대부분 낙담하거나 질투하겠지만, 요한은 기뻐했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아름다운 역설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찾기 위해 잃는 것입니다. 얻기 위해 주는 것입니다. 살기 위해 죽는 것입니다. 이 말은 때때로 작아지거나, 외적 영향력을 잃거나, 지위가 낮아지는 것은 좋은 것이란 의미입니다.

요한은 “그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한다”(30절)고 말합니다. 여러분은 아마도 할 일이 많고, 살 것도 많고, 만날 사람이 많아지는 등 빠르게 성공가도를 달리고 있을 수도 있고 그 반대로 어려움에 처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수도 있고, 식탁에 앉을 의자가 줄어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직장을 잃어서 할 일이 없거나 크리스마스 트리 주변의 선물 더미도 더 적어졌을 수 있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처럼 우리도 이러한 변화에 대해 걱정하거나 슬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제자들에게 자신이 메시아가 아니라는 사실을 상기시키기 직전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사실을 언급합니다(27절). 요한은 자신의 사명에 대한 올바른 관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마치 자신이 그리스도인 것처럼 자신을 너무 높게 생각하지 않았으며, 하나님의 계획에서 자신이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 요한은 자신이 “빛이 아니었지만 그 빛을 증언하러 온 것뿐이다”(8절)고 말

합니다. 그리스도는 “참 빛”(9절)입니다. 요한은 자신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것이 궁극적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번 대림절 기간 동안, 우리에게 주어진 성공이 우리 스스로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과분하게 부어주신 선함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므로(고전 6:19), 하나님께서 주시든, 빼앗가시든 모두 그분께 맡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어느 지점에 있든, 참 빛으로 오신 예수님의 계획을 겸손히 신뢰하고 그분의 명성을 증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묵상하기

영향력이 감소하거나 쇠하는 시기에 어떤 방식으로 기쁨과 삶의 목적을 되찾을 수 있을까요?

우리의 모든 은사와 성공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기억한다면 대림절 기간 동안 우리의 관점을 어떻게 형성하고 겸손하게 그분의 계획을 신뢰할 수 있을까요?



여섯째 날
에베소서 1:15-23



진정한 소망은 만들어질 수 없습니다

우리 능력의 한계를 받아들일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BY 카를로스 휘태커

크리스마스 묵상에서 어려운 진리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 아닐 수도 있지만, 제 말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소망에는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궁극적인 소망을 주셨지만 다른 많은 기독교 신앙의 관점처럼 소망을 품고 사는 것이 항상 쉬운 것은 아닙니다. 신앙이 갈릴리 바다의 화창한 날 같을 수도 있지만, 그 바탕에는 십자가가 있습니다. 솔직히 그 여정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알기에, 우리의 바탕이 되고 소망을 가져다 줄 수 있는 몇 가지 진리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에베소서 1장에서 바울은 교회에 소망의 실체와 교회가 스스로 성취할 수 있는 것과는 무관한 소망에 대해 이야기 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약간의 안도감을 줍니다. 소망은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소망은 교회가

스스로 해내려는 노력을 멈추고 대신 그리스도의 능력과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분의 권위에 소망을 둘 때 비로소 무대에 올라오게 됩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기자”는 말은 간단해 보이지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업무 프로젝트, 육아, 심지어 자신의 사역까지, 혼자서 모든 일을 해내려는 노력을 멈추고 다른 사람에게 맡겨야 했던 마지막 순간을 기억해 보세요. 이 정도의 신뢰와 통제력 내려놓음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소망을 둔다고 말하지만, 우리 자신의 기술과 능력에 소망을 두는 것이 훨씬 더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망에는 노력이 필요하며, 이 노력은 통제력을 내려놓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내 힘의 한계를 깨닫는 것은 내 인생의 소망의 주관자이신 예수님을 의지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에베소서 1장 19절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능력의 헤아릴 수 없는 강함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우스꽝스럽게도 저는 매일 아침 49세의 몸으로 일어나 절뚝거립니다. 이제는 잠을 자며 뒤척이는 것만으로도 힘들 때도 있고, 체육관에 갈 때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났을 때 아프지 않을 정도로만 스트레칭 해야지 다짐합니다. 제 힘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에베소서에는 실제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분의 능력은 헤아릴 수 없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그분의 위대하심과 강함에는 한계가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모두가 어떤 상황에서라도 그분께 소망을 둘 수 있는 진정한 이유입니다.

전능하신 왕의 권위는 실제로 은혜의 풍성함을 통해 우리에게 부여된 것이며, 그리스도인인 우리 안에 살아 있습니다. 이번 성탄절에 우리는 창조주의 권위를 기억하며 그분의 힘이 우리 안에, 그리고 우리를 통해 나타나도록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몸과 마음이 지쳐있다면 절기의 소란스러움 속에서 오직 그분의 힘과 권위 안에서 소망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이보다 더 소중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묵상하기

소망의 개념을 묵상하면서, 소망은 통제력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깨달음이 여러분의 신앙에 어떤 도움을 주나요? 삶의 어떤 영역에서 통제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것이 어렵다고 느끼나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전능하신 왕의 권위를 느낄 수 있습니다. 바쁘고 피곤한 성탄절에 어떤 방식으로 그분의 힘과 권위를 느낄 수 있을까요?



신성한 대관식





첫째 날
골로새서 1:15 - 20



창조주 첫 아들의 움직임

보이지 않는 것까지 사랑하는 방법

BY 캐롤라인 그렙

매년 이맘때가 되면, 우리는 평화로운 휴일과 원하는 선물을 받을 생각을 하며 여러 이미지로 머릿속이 가득 차게 됩니다. 한 번도 본 적 없는 존재를 사랑한다고 잠시 상상해 보세요. 사랑하는 대상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성취감, 완전함, 온전함에 대한 아픔과 희망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한 번도 본 적 없는 사람을 사랑한다면 어떨까요?

아기의 얼굴을 보기도 전에 뱃속에서 아기가 움직이는 것을 느껴본 엄마들은 잘 알 것입니다. 아마도 마리아 또한 아홉 달 동안 태 속에 아기가 자라는 동안 느꼈던 감정일 것이며, 그 작은 움직임이 지극히 높으신 분의 아들의 첫 움직임이라는 사실을 이해하려고 노력했을 것입니다.

지난 2,000년 동안 하나님은 연기, 불, 만나 공급자, 산의 구름 등 다양한 형태로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셨습니다. 당시 하나님의 모습을 그리거나 형상으로 표현하

는 것은 불가능했고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그분은 보이지 않으셨고 형상화할 수 없었으며 우리 인간의 눈으로 이해할 수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내재와 초월하심을 인정함으로써 참된 예배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성육신보다 더 귀한 예배를 어떻게 상상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은혜로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로 거하기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러나 가장 먼저 태어난 그분은 연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 가운데 가장 작은 존재인 신생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기본적인 의식주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무력한 피조물이 되셨습니다. 3킬로 남짓 되는 아기가 온전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은 상상하기조차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아기는 분명 태초부터 존재하셨으며 창조의 시작을 이끌었고, 가장 높은 곳에 앉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스스로 머리도 가누지 못하던 아기 예수를 통해 모든 것이 이루어졌습니다. 구유에 누운 아기 예수는 우리가 기대하지 못한 모습이었지만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겸손, 섬김 그리고 화해의 하나님이었습니다.

이야기가 더 전개되면 그 이미지는 더욱 선명해집니다. 하나님은 연약하고 작은 몸에 거하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에게 자신을 드러내신 것을 불편하게 여기거나 의무감으로 행하신 것이 아니라 그분에게는 순수한 기쁨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의 유익과 기쁨을 위해 자신을 드러내시고, 언제나 기꺼이 자신을 내어 주시고, 겸손

한 왕의 모습으로 다스리시는 것은 하나님의 순수한 마음이자 기쁨입니다. 이 땅에 평화를 가져오고, 태초에 만드신 창조 세계를 회복하고, 휘장을 걷어내고 우리가 그분을 직접 대면할 수 있는 길을 만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형상, 즉 겸손과 섬김, 화해의 기쁨을 모범으로 보여주십니다. 그분은 창조의 순간부터 말 구유, 십자가, 그리고 새로운 창조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통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묵상하기

엄마가 뱃속에서 아기의 움직임을 느끼는 비유를 생각해 보면, 마리아의 경험과 성육신의 의미를 어떻게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성육신에서 성취된 하나님의 내재와 초월하심의 긴장감을 묵상하면 힘없는 아기의 이미지가 우리의 권능과 위대함을 생각하는 개념에 어떠한 도전이 되나요?



둘째 날
누가복음 1:26 - 38



마리아의 응답에 담겨진 긴장감

용기 있는 응답이 영원까지 울려 퍼질 때

BY 말콤 구이트

누복음 1장에는 천사가 마리아에게 어떻게 찾아왔는지, 마리아가 천사의 말을 어떻게 들었는지, 그리고 마리아가 어떻게 용기 있게 응답했는지에 대한 아름다운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는 주님의 여종입니다. 당신의 말씀대로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은 신실한 성도들을 놀라움과 경외심, 그리고 무엇보다도 감사함으로 가득 차게 합니다. 누가복음의 이 몇 구절들은 성경 전체에서 중요한 전환점 중 하나입니다. 이 구절은 창세기 초기의 비극적인 전환점, 즉 하와의 불순종에 대한 해답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와의 선택은 우리 모두에게 끔찍한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물론 뱀은 정반대의 결과를 약속했지만, 하와의 뱀의 유혹에 대한 응답으로 인해 인류는 파멸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습니다. 하와의 응답으로 인해 인류는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렸지만, 마리아는 기꺼이 하나님께로 향했고, 마리아의 용감한 대답으로 인해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을 받아들였습니다. 이로 인해 예수님을 통해 누구든 원한다면 하나님께로 나아가기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모든 것이 제한적인 이 땅에서도 충만한 삶을 누리게 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는 영원한 삶으로 확장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자유와 사랑의 하나님이시며 누구에게도 자신을 강요하지 않으십니다. 그 대신 그분의 사랑에 대한 우리의 응답을 정중하게 기다리십니다. 이 구절을 숨죽이고 읽다 보면 마치 드라마처럼 그 순간을 회상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구원자로 세상에 오시겠다고 하였고, 마리아는 이 순간 우리 모두를 대변합니다. 마리아는 뭐라고 대답할까요? 마리아는 자신의 삶을 모두 바쳐 새롭게 태어나고 영원히 변화되겠다고 말할까요? 아니면 이러한 부담을 회피하려 할까요?

37절과 38절 사이에 엄청난 소요함과 긴장감이 감돌다가 마리아의 대답을 들으면 큰 안도감과 기쁨이 느껴집니다. 마리아의 “예”는 모든 것을 영원히 변화시켰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삶의 본보기가 되기도 합니다. 이제 우리도 두려워하지 말고 마음을 열고 하나님께 ‘나도 당신의 종이니 내게 하신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라고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순

간의 긴장감과 중요성을 상기하기 위해 아래 시를 감상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조금만 보고 겉으로 판단한다.
우리는 모든 사물의 외면을 보고 계산한다.
각자의 목적에만 몰두하지만
천사의 날갯짓이 그리워진다.
그들은 기쁨으로 우리 주위를 둘러싸고
소용돌이치는 바퀴와 눈과 날개가 펼쳐져
우리가 파괴하려는 선을 그들은 지켜낸다.
하나님의 세상에 숨겨진 영광의 불꽃이 있다.
하지만 이날 한 어린 소녀가 멈춰 서서
열린 눈과 마음으로 그 음성을 들었다.
아직 오지 않은 그분의 영광에 대한 약속
소녀에게 선택의 시간이 다가왔다.
가브리엘은 무릎을 꿇었고
깃털 하나도 흔들리지 않았고,
말씀 자체이신 그분이
그녀의 말을 기다리고 계셨다.

이 시는 “성모 영보 대축일” 『사계절의 소리』 (켄터베리 출판사, 2012)에 실린 작품으로 저자의 허락을 받아 사용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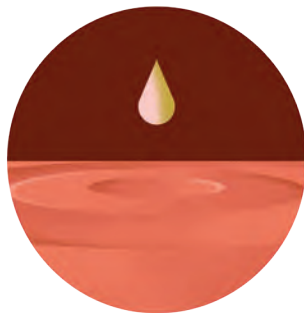
묵상하기

천사의 메시지에 대한 마리아의 대답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 용감히 “예”라고 대답하는 마리아의 모습이 여러분의 신앙에 어떤 영감과 도전을 주나요?

어떻게 하면 여러분도 마리아처럼 마음을 열고 순종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셋째 날
마태복음 1:18 - 25



요셉은 왜 침묵의 성자로 알려졌을까?

모든 일이 잘못된 것 같은 순간에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귀 기울이는 방법

BY 조이 클락슨

요셉은 침묵의 성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이야기에서 그가 차지하는 비중은 절대 작지 않지만 (요셉은 예수님까지 이어진 왕의 계보에 속하며, 요셉의 직업은 예수님이 택하신 직업이기도 합니다), 복음서 어디에서도 요셉은 단 한마디도 말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탄생을 둘러싼 이야기에서 중요한 주제입니다: 스가라는 성전에서 침묵을 지켰고 요셉은 조용히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고민하는 반면, 마리아와 엘리사벳은 예언하며 초기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그러나 요셉이 말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가 소극적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로 요셉은 풍부한 내면을 갖고 결단력 있는 행동을 하는 사람으로 보입니다. 요셉은 아내 될 사람이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지만, 약혼을 파기하여

마리아를 공개적으로 곤혹스럽게 만들지 않고 나쁜 상황에 처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부정으로 인한 행위였다고 약혼자가 비난받을 수 있는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요셉은 대신 자비롭고 현명한 계획을 세웁니다.

요셉에 대한 유일한 인물 묘사는 그가 “의로운 사람”이라는 것뿐입니다(19절). 그래서 그는 마리아의 상황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의로우면서도 마리아에게 은혜로운 계획을 결정합니다. 이 모든 것을 조용히 직접 행하며 그가 관대함 이면에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우리는 상상만 할 수 있습니다. 이 침묵하는 성인은 어려움을 당했을 때 자제력을 갖고 스스로 마음을 다스리며 고통의 원인인 마리아를 참아내고 보호하는 미덕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하는 많은 사람들처럼, 수면 아래 더 깊은 곳으로부터 요셉에게 뭔가가 다가왔습니다. 그것은 천사를 통해 주어진 꿈입니다. 이 꿈은 요셉에게 위로와 확신으로 다가왔을 것이며, 동시에 상당한 혼란을 안겨주었을 것입니다. 모든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주님의 말씀에 충실했던 요셉이 천사의 이 말씀에도 충실했다는 것만 기록되어 있을 뿐입니다. 그는 다시 한번 예언을 선포하는 대신 행동하기로 합니다.

요셉은 사려 깊고 자제력이 뛰어난 사람이었지만 자신이 자제력이 부족해서 마리아가 임신했다고 사람들이 생각하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그는 마리아의 수치를 자신에게 뒤집어씌워 예수님이 온 인류를 위해 하실 일을 예고한 것

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을 아무 말 없이 행하였습니다.

우리는 말의 홍수 속에 살아갑니다. 침묵의 성자 요셉을 통해 다른 존재 방식, 즉 침묵하며 그 가운데 조용히 행동하는 것이 때로는 가장 중요하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일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묵상하기

요셉의 조용하지만 결단력 있는 행동을 되돌아보며 우리 삶에서 침묵과 자제력의 힘에 대해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도 어려운 상황 속에서 침묵과 행동의 자세를 기를 수 있을까요?

요셉의 이야기에서 꿈을 통한 하나님의 인도에 대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음성과 인도하심에 어떻게 귀를 기울일 수 있을까요? 어떻게 혼란스럽고 어려울 때에도 그분의 뜻을 분별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신뢰할 수 있을까요?



넷째 날
누가복음 1:39 - 55



대조적인 두 어머니

마리아와 엘리사벳이 기쁨을 통해
하나님을 높이는 방법

BY 도로시 베넷

중 종 우리는 주변 사람들과 비슷한 인생의 여러 시기를 지날 때, 우리 상황과 비교하여 다른 사람들이 상황에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주목합니다. 고등학교 시절이나 대학에서 시작된 연인관계로부터 그 후 십여 년 간 이어지는 결혼의 시기, 또는 아이를 낳고 키우는 시기 동안 그렇게 합니다. 우리 삶에서 겪는 이러한 격동적인 시기를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도움이 될 수도 있지만, 누가의 기록에 따르면 다가올 하나님 나라에 초점을 맞추므로서 이런 비교는 무의미해집니다.

천사 가브리엘은 마리아에게 기적적으로 아들을 가질 것이며 사촌 엘리사벳도 노년에 임신했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방문했을 때 두 여성은 분명히 그들의 상황이 달라졌다는 것을 알아차렸을 것입니다. 엘리사벳은 임신

하여 사람들로부터 더는 불명예스럽지 않게 되었고, 반대로 마리아는 임신으로 인해 불명예가 시작되었습니다. 엘리사벳의 아들은 결혼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주어졌지만, 마리아의 아들은 성령으로 잉태되었습니다.

이 관계에서 상상해 볼 수 있는 긴장감은 마리아의 찬가를 살펴보면 더욱 가중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셨을 때, 마리아의 찬가는 그가 어떤 왕국을 세우려 오셨는지 묘사합니다. 그 나라는 사회적 통념을 뒤집을 것입니다. 교만한 자들은 흩어지고 부자들은 빈손으로 쫓겨날 것입니다. 겸손한 자들은 들어 올려지고 배고픈 자들은 좋은 것으로 채움을 받을 것입니다. 누가복음을 읽다 보면 엘리사벳은 들어 올려졌고 마리아는 더 높이 들어 올려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대인의 눈으로 분별력 없이 보면 엘리사벳은 자부심을 가질 자격이 충분하고, 마리아는 그럴 자격이 없습니다.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방문했을 때 그 저 피난처를 구했거나 엘리사벳이 위로만 했다면 서로를 더 잘 이해할 수 있었을까요? 어쩌면 그들은 다가올 출산을 준비하면서 서로의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면서 어색한 상황에 처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누가는 두 여인 사이에 긴장이나 슬픔이 있다고 기록하지 않습니다. 기쁨이 있었다고 기록합니다. 두 여인에게는 같은 시기에 둘 다 임신했다는 것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역사하시며 자신들의 삶에 깊이 관여하신다는 기

적의 증거를 믿었습니다. 찰스 스펔전은 마리아의 찬가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 그분과의 연합으로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그분으로 인해 기쁘지 아니한가!”

엘리사벳의 환희와 마리아의 찬가는 몇 가지 가슴 아픈 질문을 던지게 합니다: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것에 어긋날 때도 내 눈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찾고 있는가? 내 가장 깊은 욕망에 겸손함이 없을 때도 나는 누군가 축복 받았다고 선언할 수 있을까?

그는 자비로우시기에, 내 영혼은 그분께 영광 돌리며, 내 영은 기뻐해야 합니다. 우리 또한 반대 상황을 극복하기 위함이 아니라, 다가오는 그리스도의 나라의 영광에 시선을 맞추고, 엘리사벳처럼 다른 상황 속에서 기뻐하고, 마리아처럼 주변의 핍박 속에서도 찬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묵상하기

- 마리아와 엘리사벳의 만남 이야기는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그들과 경쟁하려는 우리에게 어떤 도전을 주나요?
- 마리아와 엘리사벳은 어떤 방식으로 사회적 기대와 규범에 맞서 겸손과 기쁨을 보여주었나요?



다섯째 날
마태복음 2:13-23



이집트에서 영원으로

여러 세대에 걸쳐 올려 펴지는 마리아와 요셉의 역경

BY 크리스텔 에이스베도

어머니가 저를 임신한 지 9개월이 되었을 때, 어머니와 아버지는 갑자기 고국을 떠나야 했습니다. 전쟁이 발발했고 두 분이 살던 수도까지 위협해졌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는 직업 때문에 게릴라 전사들의 표적이 되었습니다. 우리 가족은 안전하지 않았습니다.

무고한 생명을 잉태한 배를 움켜쥔 어머니의 모습을 떠올리며 당시 어머니의 기분이 어땠는지 궁금해집니다. 상황이 어떻게 될지 확신하지 못한 채 두려움에 떨었을 것이고, 새 가족을 꾸리려던 계획이 틀어지자 부모님은 길을 잃고 혼란스러워하셨을 것입니다. 임신 9개월인 상태에서 난민이 되는 것을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마태복음 2:13-23의 이야기는 제 가족이 겪은 이야기와 비슷하기에, 제게 점점 더 생생하게 다가왔습니다. 아기를 두 팔로 감싸 안은 마리아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예”라고 대답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궁금해하며 두려움, 혼란, 절망에 빠졌을 마리아와 요셉의 모습을 상상해 봅니다. 누구도 갓난아기를 안고 난민 생활을 하기 원하지 않습니다. 마태는 이 이야기 속에서 심오한 예언으로 가득 찬 호세아 11:1을 떠올리게 합니다.

“이스라엘이 어린 아이일 때에, 내가 그를 사랑하여 내 아들을 이집트에서 불러냈다.” 어둡고 절망적인 상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게는 결코 좌절되지 않을 완벽한 계획과 목적이 있었습니다. 살인마 독재자를 피해 도망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처럼 보이지 않을 수도 있지만, 우리는 그보다 더 크고 근본적인 계획이 성취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의 가족이 이집트 땅으로 도망쳤다가 다시 나오는 경험은 이스라엘이 출애굽에서 경험한 것과 같은 일이 성취된 것입니다. 한때 하나님의 백성이 했던 경험을 묘사하던 단어가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인 메시아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마리아와 요셉, 그리고 제 부모님이 처했던 상황을 생각하며 잠언의 지혜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앞길을 계획하지만,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주님이시다.” (잠 16:9). 우리는 스스로 계획을 세우고 하나님이 어떻게 움직이실지 안다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취할 발걸음은 오직 그분만이 진정으로 아십니다. 때로

는 그 발걸음이 우리를 편안하고 익숙한 곳으로 인도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우리의 고향에서 벗어나 참되고 유일한 위로자 되시는 하나님을 알게 할 새로운 땅으로 인도하기도 합니다.

감사하게도 저희 부모님은 낯선 땅에서 새로운 터전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두 딸을 예수님을 알고 사랑하도록 양육할 수 있었습니다. 마리아와 요셉은 예수님을 직접 양육하며 오랫동안 기다려 온 예언을 성취하고, 그 머나먼 땅에서 새롭고 영원한 나라를 세우려는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할 수 있었습니다. 이 대림절 시기에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대대로 펼쳐지는 계획의 실타래를 엮어 가시는 방식을 바라보며 놀라움을 금치 못합니다.

묵상하기

마리아와 요셉의 여정을 묵상해 보면 그들이 겪어야 했던 두려움과 불확실성, 예상치 못한 길에 대한 이해가 어떻게 더 깊어지나요?

호세아 11:1에 나오는 예언의 성취는 예수님께서 이집트로 피난가셨다가 다시 나오신 것을 통해 결코 좌절될 수 없는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과 목적을 보여줍니다. 이 사실이 여러분의 삶에 어떠한 희망과 확신을 주나요?



여섯째 날
이사야 60:1 - 3



어둠에서 빛으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오신 세상의 빛

BY 존 니타

많은

사람이 어린 시절에는 어둠을 두려워합니다. 어렸을 때 침대에 누워 라디오에서 나오는 LA 다저스 경기를 듣다가 움직이는 그림자를 보고 어두운 벽장을 노려보며 어떤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지 알아내려고 애썼던 기억이 납니다. 자라면서는 두려움의 원인을 설명하기 위해 괴물이나 악몽을 떠올리기도 하지만, 우리를 불안하게 만드는 것은, 어둠 그 자체입니다. 미지의 세계로 가득 찬 어둠 속의 경험은 우리의 영혼에 깊이 각인된 것 같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은 빛과 어둠을 나누셨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선하신, 의도적이고 창조적인 행위였습니다. 하지만 아담과 하와의 반역적인 결정으로 인해 죄가 세상에 들어온 후 어둠은 새로운 의미를 갖게 되었습니다. 어둠은 단순히 "저 밖에"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둠은 우리 안에 있었고 우리를 향해 밀고 들어왔습니다. 바빌로니아 탈무드와 같은 유대 문헌에서 어둠은 불

안정한 방향 감각 상실, 사람을 덮치는 두려움에 대한 은유로 표현됩니다. 또한, 어둠은 방향과 정체성이나 미래에 대해 고민하며 고군분투하게 만드는 악과 죄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마찬가지로 이사야 9장에서는 “어둠”이라는 단어 tzalmavet를 통해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어두운 죽음의 그림자를 묘사합니다.

이사야 60:1-3은 창세기 1장의 익숙한 이야기를 되풀이합니다. 빛과 어둠이 대조되고 분리됩니다. 그러나 이사야의 이야기에서 어둠은 창조주이신 주님께서 명령하실 때가 아니라 그분의 충만하심이 임하실 때 사라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사야는 어둠 속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빛이 되시는 왕의 오심, 즉 대림절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의 말씀은 이번 대림절 기간에 첫 번째 대림절을 기억하라는 초대장과 같은 말씀입니다. 세상의 빛이 겸손하게 아기의 모습으로 오셔서 죄의 어둠에 맞선 그 사건은 극적이지 않지만 숭고합니다. 이사야의 말씀은 축하의 말씀입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너희 빛이 왔음이니라” (1절). 빛은 우리의 마음을 비추어 죄의 깊이를 깨닫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 완성하신 예수님의 구원 사역도 깨닫게 합니다.

이사야서의 말씀은 우리의 소명을 상기시켜 줍니다. 우리가 그분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이 빛을 우리 안에 탐욕스럽게 보관만 하고 있을 수 없습니다. 이 빛은 열광과 이웃들이 예수님을 세상의 빛으로 분명히 볼 수 있도록 찬란하게 빛나야 합니다(요 8:12). 예수님이

주신 빛의 복음이 우리 안에서 더 빛날 때, 예배의 빛과 복음을 이웃들에게 나누고 세상 밖으로 드러낼 수 있습니다.

묵상하기

창세기와 이사야서에서 어둠의 개념은 단순히 물리적 빛의 부재뿐만 아니라 우리 삶에서 죄와 방향 감각 상실을 어떻게 상징하나요?

이번 대림절에 어떻게 이사야의 예언을 이해하고 예배와 복음 전파를 통해 예수님의 빛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을까요?



일곱째 날
누가복음 2:13-14



구원의 교향곡

앞으로 일어날 일을 미리 보여주는 천사들의 축제

BY 알렉시스 래건

누가복음 2:13에서 사람들은 밤하늘을 행진하는 천사들의 행렬을 목격하며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하늘을 가득 채우는 축하의 함성을 들으며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으신 예수님을 영예롭게 찬양하는 모습은 얼마나 놀라웠을까요? 밤하늘을 가득 채운 천상의 소리가 어땠을지 조금이나마 상상해 보십시오. 헨델의 메시아에 나오는 유명한 합창곡 “할렐루야” 같을 것입니다. 천사들의 합창단이 그리스도의 임재와 능력을 환영하며 찬양한 것을, 수 세기 동안 이어온 지상에서의 거룩한 저녁, 교향곡으로 표현한 찬양입니다.

2,000여 년 전 그날 밤의 축하 행사는 눈처럼 하얀 어린 양이 식탁의 높은 곳에 앉아 신부가 도착하기를 기다리면서 펼쳐질 잔치의 예표입니다. 천사들이 목자들

에게 선포하는 장면과 헨델의 메시아가 울려 퍼지는 음악, 그리고 요한계시록 19장에 나오는 그리스도와 그의 교회의 완성을 찬양하는 “큰 무리의 소리” 사이에서 유사점을 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전능하신 분께서 왕권을 잡으셨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어린 양의 혼인날이 이르렀다.
그의 신부는 단장을 끝냈다.

신부에게 빛나고 깨끗한 모시 옷을 입게 하셨다.
이 모시 옷은 성도들의 의로운 행위다.”
(계 19:6-8)

이 구절에서 요한은 하늘나라에서 벌어질 혼인잔치를 예고하고 천상의 의식에 어울리는 빛나는 옷으로 장식한 그리스도의 신부가 도착하는 것을 목격합니다. 누가복음 2장과 요한계시록 19장이 교차하는 장면에서는 지상에서 어린아이로 태어나신 그리스도가 하늘에서 만왕의 왕으로 열렬히 찬양받고 환호하는 모습을 표현합니다.

두 장면 모두 그리스도가 최고의 주권자로 인정받는 하늘의 위엄을 보여 주며, 각 장면마다 그에게 영광을 돌리기 위해 헌신하는 하늘의 무리를 드러냅니다. 두 구절을 통해 예수님의 임재와 능력을 선포하는 구원의 교향곡을 들을 수 있습니다. 대림절을 맞이하여, 우리는 거룩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다시 오심과 그분의 영원한 통치의 영광을 목

상합니다. 그날처럼 우리 또한 구원의 교향곡에 참여하도록 초대받았습니다.

묵상하기

이 장면들을 묵상하면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과 교회와의 연합에 대한 경외심이 어떻게 더 깊어지나요?

그리스도의 겸손한 지상 강림과 하늘에서의 영광스러운 통치 사이의 유사성을 묵상하면서 그분의 신성한 본성과 목적에 대해 무엇을 깨달았나요?

A stylized illustration of a night landscape. The sky is a deep purple with a crescent moon on the left and a bright, multi-pointed star on the right. A beam of light shines down from the star onto a small, simple structure in the foreground. The landscape features rolling hills and mountains in shades of purple and blue. In the foreground, there are several dark, silhouetted trees and a small, simple structure with a gabled roof. The overall mood is serene and mystical.

천사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온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될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여 준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서 너희에게 구주가
나셨으니, 그는 곧 그리스도 주님이시다."

누가복음 2:10-11



크리스마스 이브
누가복음 2:8 - 20



하나님의 놀라운 선포 방식

영광스러운 도래에 관한 다른 관점

BY 로니 마틴

그리스도의 탄생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아들의 탄생 자체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들의 탄생을 세상에 알리기로 택하신 방식도 놀랍습니다. 슈퍼볼 기간처럼 대규모 마케팅이나 소셜 미디어 캠페인, 유료 TV 광고 하나 없이 주님께서는 목자들을 택해 모든 사람에게 큰 기쁨이 될 좋은 소식을 전하셨습니다. 어두운 밤에 “지극히 높은 곳에 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고 노래하는 수많은 천사가 나타났을 때 이 가난한 목자들이 얼마나 압도당했을지 상상해 보십시오. 사회적 영향력이 낮은 목자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이 엄청난 광경을 생각하면 우리는 경이로움에 사로잡힙니다.

그리스도의 탄생을 생각하면 우리는 마리아와 요셉, 구유, 그리고 몇몇 동물들을 떠올립니다. 이렇게 단순하고 이해하기 힘든 탄생의 순간이라니, 어떤 부모라도

원치 않을 탄생의 장면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상상해 보면 아들의 신성한 탄생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절대 화려하지 않았음을 기억합니다.

초월적인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가 경건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아들을 이해하기를 원하시는 방식은 바로 낮은 자의 모습입니다. 빌립보서는 예수님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빌 2:6-7).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방식은 브랜드의 가치를 높이고, 더 많은 팔로워를 확보하고, 플랫폼을 발전시키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리더십 서적이나 전략 세미나 또는 인플루언서 동영상에서 말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일하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이해력을 뛰어넘는 거룩한 방식으로 일하시고 우리의 가치를 매우 특별한 방식으로 다루시며 세상의 리듬이나 방식과는 일치하지 않는 방식으로 일하십니다. 수천 년이 지난 후 우리도 마리아처럼 이 탄생을 소중히 여기고 깊이 생각하며, 이 목자들처럼 보고 들은 모든 것에 대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하며 돌아갈 수 있도록, 이와 같은 특별한 사건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여러분도 예수님처럼 자신을 낮추시겠습니까? 여러분도 이 목자들처럼 인도함을 받으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을 우연이라 생각하지 않고, 평범한 삶의

순간들 속에서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놀라운 방식으로 보시겠습니까? 주위를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큰 평화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의 영광이 여러분을 두려움 대신 큰 빛으로 채우실 것입니다.

묵상하기

예수님의 탄생 소식은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낮은 위치의 목자들에게 선포되었습니다. 이 파격적인 방식은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영향력이나 권력에 대한 사회적 관념에 어떤 영향을 주나요?

예수님의 탄생 소식은 성공에 대한 우리가 세상에서 인정받고 영향력을 행사하는 방식을 변화시킵니다. 우리 삶의 평범한 순간에도 하나님이 일하시고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는 기회로 인식하고 감사하도록 어떻게 관점을 바꿀 수 있을까요?



성탄절
이사야 9:2-7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빛이 있습니다

성탄절의 진정한 선물

BY 트릴리아 뉴벨

성

탄의 아침이 밝았습니다. 제 아이들에게 성탄절은 선물 받는 날을 의미합니다. 아이들은 아마도 12월 26일부터 다음 해에 받을 선물 목록을 생각하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아이들은 몇 달 동안 다음에 받을 선물에 대해 기대하며 이야기합니다.

드디어 선물이 도착하면 아이들은 다양한 반응을 보이는데, 어떤 아이는 다른 아이들보다 더 흥분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언제나 변함없는 한 가지는 이것입니다. 한 시간 정도 지나면 아이들은 일 년 내내 기대했던 선물은 잊어버리고 다른 일에 몰두합니다. 지속적인 선물은 받을 때는 기쁘지만 누구에게나 궁극적인 만족감을 주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아쉬움을 남기기도 합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만족스러운 선물이 하나 있습니다. 그 선물은 끊이지 않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선물입니

다. 결코, 우리를 실망하게 하지 않고, 우리를 지탱해 주며, 언제나 사용할 수 있는 선물이 있습니다. 그 선물은 바로 세상의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사야는 세상을 구원할 아기에 대해 예언합니다. 이 놀라운 소식은 암울한 시기에 반향함에 빠져 있는 백성에게 전해졌습니다. 그들은 전쟁과 불안 속에 있었습니다. 평화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어둠은 끝이 없는 듯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한 상황을 이겨내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경험한 어둠은 영적인 어둠이기도 했습니다. 구세주를 알기 전에 우리 모두가 경험하는 어둠입니다.

구약의 이사야 9:2의 빛에 대한 약속은 예수님을 통해 성취됩니다. “어둠 속에서 헤매던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빛이 비쳤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복음에 대한 약속이었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전해집니다. 세상의 빛이 이 땅에 왔으며, 우리가 빛 가운데 살아가면 생명의 빛을 얻게 될 것입니다 (요일 1:7, 요 8:12). 우리는 빛과 진리를 믿기 때문에 더는 어둠 속에 갇지 않을 것이고 따라서 멸망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정직하고 약한 존재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빛과 기쁨을 주시기 위해 오셨기에, 빛 되신 예수님으로부터 숨을 필요가 없으며, 피하려 해도 피할 수 없습니다. 이사야의 예언은 빛을 넘어 승리로 이어집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영광스러운 삶과 큰 기쁨을 주셨고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사 9:3-5).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났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셨으니” (6절)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이 모든 것을 받게 됩니다.

고대 이스라엘 백성이 겪었던 반역, 전쟁, 분노, 분쟁 등의 문제는 오늘날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어둠은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이해한다면 하나님이 주신 빛의 선물과 아름다움이 훨씬 더 밝게 보일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성탄절의 희망, 즉 큰 빛을 가져다주기 위해 태어난 아기가 가져다주는 희망이 필요합니다. 고대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던 것처럼, 모든 인류가 그랬던 것처럼 오늘날의 우리에게도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그때와 똑같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오늘도, 내일도,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히 예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오늘, 그분이 주시는 것들을 온전히 누리길 원합니다. 여러분이 빛 안에서 그분과 함께 살아가길 간구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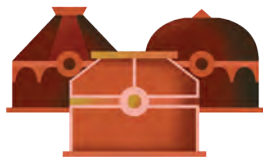
묵상하기

이 땅에서 받는 선물은 우리를 만족시키지 못하고 더 많은 것을 원하게 하지만, 예수님을 통한 만족과 성취감은 이와 다르다는 것을 경험하셨습니다가?

우리 일상에서 어떻게 성탄의 희망과 예수님의 임재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 수 있을까요?



12월 26일
마태복음 2:1 - 12



이 '주현절'이 특별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모든 이들을 위한 대림절의 특별한 계시

BY 말콤 구이트

마태복음에 기록된 “동방박사” 이야기는 특별한 신비와 기쁨을 담고 있으며, 그리스도인들은 오랫동안 주현절이라는 특별한 축일을 기념해 왔습니다. 그리스어 epiphneia는 “빛나다” 또는 “드러나다”라는 뜻입니다. 물론 성경은 위대한 하나님의 현현 즉 주현절 가득합니다: 불타는 떨기나무가 모세를 돌이켜 하나님을 만나게 한 것도 하나님의 현현이었고, 이사야 6장에 나오는 “주께서 들리셨다”는 이사야의 환상도 하나님의 현현이었으며,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이 열린 것도 하나님의 현현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마태복음에서 이 특별한 순간을 어떻게 주현절이라고 부르게 되었을까요? 그 답은 원래 택한 백성인 유대 민족으로 태어나지 않은 이방인 혈통의 우리에게 특별히 중요한 것과 연관 있습니다.

때때로 구약성경을 읽다 보면 다른 사람의 오래된 가족사를 엿듣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과연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궁금해지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우리는 갑자기 우리의 이름을 듣게 되고, 이것이 또한 우리 자신의 이야기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바로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에게 다가가는 순간을 통해서입니다. 지금까지 오실 메시아에 관한 이야기는 언약백성인 이스라엘에게만 국한되어 있었지만, 여기서는 갑자기 그리고 신비롭게도 세 명의 이방인이 예수님의 탄생을 그들에게도 좋은 소식임을 직감하고 선물을 들고 찾아왔습니다. 여기에는 그리스도의 탄생이 한 지역의 종교 안에서만 일어난 작은 사건이 아니라 모든 인류를 위한 위대한 도약이라는 하나님의 현현과 계시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방인과 유대인, 그리고 우리 모두를 위해 오셨습니다.

저는 동방박사 세 사람이 전통적으로 세계의 다양한 인종, 문화, 언어를 대표하는 것으로 묘사되는 방식이 마음에 듭니다. 저는 다양성으로 대표되는 세상이 동방박사들의 부지런함과 기쁨에 사로잡히는 방식으로 묘사되는 것이 마음에 듭니다. 동방박사들은 “부지런히” 찾고 “지금까지 큰 기쁨으로” 기뻐합니다. 저는 그들이 자신을 넘어서는 어떠한 존재를 향해 인도하도록 동방박사들이 별의 인도를 따르는 방식이 마음에 듭니다. 다음은 이 이

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를 조금이나마 표현한 시입니다:

우리와 상관없는 이야기일 수도 있다.
특별한 왕이 선택받은 백성에게 나섰다는 소식
그들만의 영광으로 여길 수 있었다.
우리가 속하지 않는다면 아무 의미가 없기에
하지만 세 사람이 도착하자
우리도 함께 축하했네.

우리와 같은 이방인인 그들의 지혜가
우리의 것이 될 수 있으리
내면의 리듬을 찾는 꾸준한 발걸음으로
별 너머를 보는 순례자의 눈.
그들은 그분의 이름을 알지 못했지만
그래도 그분을 향해 찾아갔다.
다른 곳에서 왔지만
그들은 발견했다.
성전에서 그들은 사람들을 발견했다.
그분을 사고판 사람들을 발견했다,
더러운 마구간, 거룩한 땅에서.
그들의 용기는 우리의 의구심에
답을 가져다주네
구하고, 찾고, 경배하고,
기뻐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이 시 “주현절”은 Sounding the Seasons(켄터베리 출판사, 2012)에 수록된 것으로, 저자의 허락을 받아 사용하였습니다.

묵상하기

동방박사들이 보여준 부지런함과 기쁨에 대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분을 묵상할 때 우리도 그리스도를 따를 때 부지런히 찾으면서 즐거워하는 마음을 어떻게 동시에 가질 수 있을까요?



12월 27일
요한계시록 21:1 - 6



애통하는 자들을 위한 대림절

현재의 삶을 인내하게 하는 연합에 대한 소망

BY 크레이그 스미스

성

탄절이 모두에게 항상 즐겁고 유쾌한 것은 아닙니다. 사실 아픔과 슬픔, 눈물, 고통으로 가득할 수도 있습니다. 제게도 그랬습니다. 2021년 6월 30일 이후로 우리 가족은 연휴마다 슬픔으로 눈물지었습니다.

그날 20살이던 딸이 휴가를 마치고 함께 집으로 돌아오던 중 비극적인 교통사고로 사망했습니다. 순식간에 첫째 아이를 잃었습니다.

죽음은 우리의 적입니다. 저는 죽음이 싫고 눈물이 지긋지긋합니다. 하지만 6월의 그날이 제게 가장 큰 슬픔의 날이었다면, 요한계시록 21장은 제게 가장 큰 소망과 위로를 주는 원천입니다.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로 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그의 백성을 위해 확보하신 영원한 승리에 대한 확신을 발견합니다. 사랑의 목자께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죄와 죽음과 마귀를 영원히 멸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미래에 바라는 상급이며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맞이하게 될 운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범위는 우리 영혼의 구원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이 복음에는 창세기 3장에서 인간이 타락했을 때 잃어버린 모든 것의 회복과 구속이 포함됩니다. 이 회복은 새 하늘과 새 예루살렘, 그리고 영광스러운 새 땅을 상속받기 위해 부활하는 온전한 몸의 회복을 뜻합니다. 우리는 온 우주의 변화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 묘사된 마지막 날에 대한 비전은 지금 우리가 가진 것보다 질적으로 새롭고 뛰어날 것입니다. 본문은 현재 우리가 사는 이 땅이 전부 사라질 것을 예언하고 곧바로 새롭고 장엄한 시작이 올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새로운 땅은 그리스도의 나라가 충만하게 드러날 곳이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는 유일한 왕으로서 그의 백성과 함께 평화와 권능 가운데 거하실 곳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본질이며, 하나님과의 친밀하고 개인적인 관계이며, 끝이 없고 영원히 지속될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그분을 경배하고, 그분을 섬기고, 그분과 함께 통치하고, 그분과 함께 청지기 역할을 하기 위해 함께 모일 것이므로 반대하는 정당과 교파는 없을 것입니다. 더 이상 죽음은 없을 것입니다.

다. 목적이 있는 일을 성취하고, 가족과 친구들이 이별에 대한 두려움 없이 즐길 수 있으며, 배우고 발견하는 영원 속에 거할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깊이 열망하는 하나님과 그리고 서로 간의 연합이 지속적으로 성취될 것입니다.

우리 가족의 비극과 연휴 기간의 슬픔이 압도적으로 느껴질 때도 그 위대한 날에 대한 소망을 떠올리면 오늘을 인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우리 주님은 그 첫 번째 성탄절에 매우 낮은 자리에 오셨지만 절대적인 승리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사도 요한에게 주어진 강력한 환상은 주님께서 “그렇다, 내가 곧 가리라”고 말씀하시며 마무리됩니다. 이에 요한은 모든 마음이 슬픈 자들과 함께 응답합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묵상하기

요한계시록 21:1-6의 약속은 성탄절에도 슬픔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소망을 주나요?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기대가 현재의 어려움에 대한 관점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그의 자비하심은, 그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대대로 있을 것입니다.

누가복음 1:50



영원하신 왕, 곧 없어지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는,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토록 있기를 빕니다.
아멘.

디모데전서 1:17

CT

ISBN: 978-1-61407-253-9